

밀 생산단지 지원사업의 소득효과*

석다솜, 소남호*, 박지인, 하두중, 이상래, 김상진

*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

e-mail: dsseok@korea.kr, soxxx007@korea.kr, zin517@korea.kr, workman@korea.kr,
sllee7@korea.kr, progray@korea.kr

Income Effect of Wheat Production Complex Supports Project

Da-Som Seok, Nam-Ho So*, Ji-In, Park, Doo-Jong, Ha, Sang-Lae, Lee, Sang-Jin, Kim

*Dept. of Farm & Agribusiness Management Division, RDA

요약

한국의 식생활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. 전통적인 식생활에 비해 서구화된 식생활은 밀을 원료로 하는 빵과 면 등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식생활로 변화하였다. 2021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, 1인당 쌀 소비량은 57.7kg이었고 밀은 31.2kg으로 나타났다. 이제 밀은 제2의 주곡으로 자리잡았다. 그러나 식량자급률을 보면 쌀의 경우 92.8%인데 비해 밀은 0.8%로 자급률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.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우리 정부는 「밀산업 육성법」을 제정하고, 「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(2021~2025)」를 수립하여 국산 밀의 자급 기반을 정비하고 확대하려고 한다.

본 연구에서는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의 일환인 '보급중 공급체계 개선'이 밀 생산단지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. '보급중 공급체계 개선'과제에서는 '국산 밀 생산단지사업'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 밀 자급률 5% 달성 시까지 보급중의 가격을 50%할인하여 공급할 계획이다. 국산 밀 생산단지사업 참여농가 중 최근 5년('16~'20년) 우수한 경영성적을 올린 6농가를 선정하여 보급중 할인 공급의 효과가 농가의 중간재비, 경영비, 생산비와 소득 및 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. 각 농가의 2020년 과중한 밀의 종자비는 전체면적 기준 최소 56만 원에서 최대 2천 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. 밀 재배면적(전체 기준)을 대상으로 중간재비, 경영비, 생산비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, 중간재비는 2.9%~23.0%, 경영비는 1.1%~22.8%, 생산비는 0.8%~21.8%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.

결과적으로, 보급중 할인가에 따른 비용감소로 인해 농가별 0.8%~17.2%의 소득 증대가 추정된다. 따라서, 기존 밀 생산단지 지원사업(보급중 할인공급)을 통해 밀 생산단지 소득이 개선될 경우, 재배농가 및 재배면적 증가로 밀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 그러나 밀 재배농가의 효과적인 소득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사업(건조·저장시설 확충, 생산단지별 재배안내서 제작, 재해보험 개선 등)이 조속히 시행되어 안정적인 밀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. 또한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소비처 확보와 주력 소비품목 육성도 현안 과제로 남아있다.

*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(과제번호: PJ01576502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.